

# 무안군, 시 승격 위해 흥성군과 손 잡았다

### 김산 군수·이정운 군의회 의장 흥성군과 공동협력 협약 체결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건의문 제출키로

무안군이 시 승격 추진을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흥성군과 손을 잡았다. 무안군은 지난 27일 충남 흥성군을 방문해 시 승격을 위해 공동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 단위 지역이 자력으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자가 5만명 이상,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도청 소재지이며 농복합 지역인 무안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확대개편 등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조기에 시 승격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와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김석환 흥성군수와 김현수 흥성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도청소재지 군의 시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양 군이 도청소재지 군으로서 시 승격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무안군 서삼석 국회의원과 흥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안·흥성 양 군은 현재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과 도청 소재지에 걸맞은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승격 당위성 등을 담아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지난 27일 충남 흥성군청에서 김산(왼쪽에서 두번째) 무안군수가 흥성군과 시 승격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승격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시 승격이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선택되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흥성군과 공동협력해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 승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갯벌보호 정책 설명·교육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지역 갯벌보호를 위해 신안, 무안, 진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설명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수산물 생산과 오염물질 정화, 육지와 바다 사이의 재해 완충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습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갯벌보호를 위해 매년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갯벌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습지보호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생태계 보전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들은 "평생 갯벌을 보고 살아와서 갯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갯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갯벌생태계 복원 등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주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영광소방서,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영광소방서는 지난 27일 영광터미널 일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관계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민들의 화재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해 펼쳤다. 겨울철 화재 위험 3대 용품인 전기장판과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

법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권고, 소방통로 및 비상구 확보 계도, 119다매체 신고 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박우량 영광소방서장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세일요트 낙조투어'를 진행할 요트.

## "해질녘 노을 감상하세요" 신안군 '세일요트 낙조투어' 12월부터 압해도 선착장 출발

신안군이 12월부터 압해도 선착장에서 전사대교까지 운항하는 '세일요트 낙조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상품은 압해도 선착장을 출발해 전사대교까지 운항하며, 해질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1시간 30분 투어 기준 성인은 2만원, 청소년·군인은 1만7500원, 어린이·노인은 1만5000원이다. 세일 요트는 44명이 탈 수 있는 55피트급 쌍동선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요트 상품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낙조투어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운용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광군 '그물망 CCTV' 주민 안전 책임진다

### 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각종 재난·사건 사고 집중감시

영광군이 안전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난해부터 확대 구축 중인 '그물망 CCTV'가 주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겨울철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등에 대비해 지난해 개

소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365일 쉬 없이 운영되는 관제센터에는 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관제 목적에 따라 어린이 보호,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관제센터 운영 이후 지난 10월까지 범죄 관련 65건, 교통관련 98건 등 각종 사건·사고 영상 252건을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CCTV관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터미널 주변과 방범취약지역 등 42곳에 CCTV 109대를 추가로 설치

했다.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영광군은 현재 주요지점 총 234곳에서 65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살기 좋은 도시의 첫째 조건은 안전 담보에 있다"며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함평군, 2018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군 선정

함평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 도로정비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연말에는 당해 연도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을 선정해 표창한다. 함평군은 현재 지방도 6개 노선 69.7km, 군도 16개 노선 111.96km,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182.89km 등 총 234개 노선, 364.55km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함평군은 이들 도로의 노면 평탄성 확보, 배수시설 기능 유지, 낙석 및 산

사태 위험지구 정비, 제설차 및 장비 점검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배수구(측구)·포트를 정비 등 중장비 등을 활용해 도로의 기능유지에도 힘썼다. 특히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에는 살수차를 통해 시내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